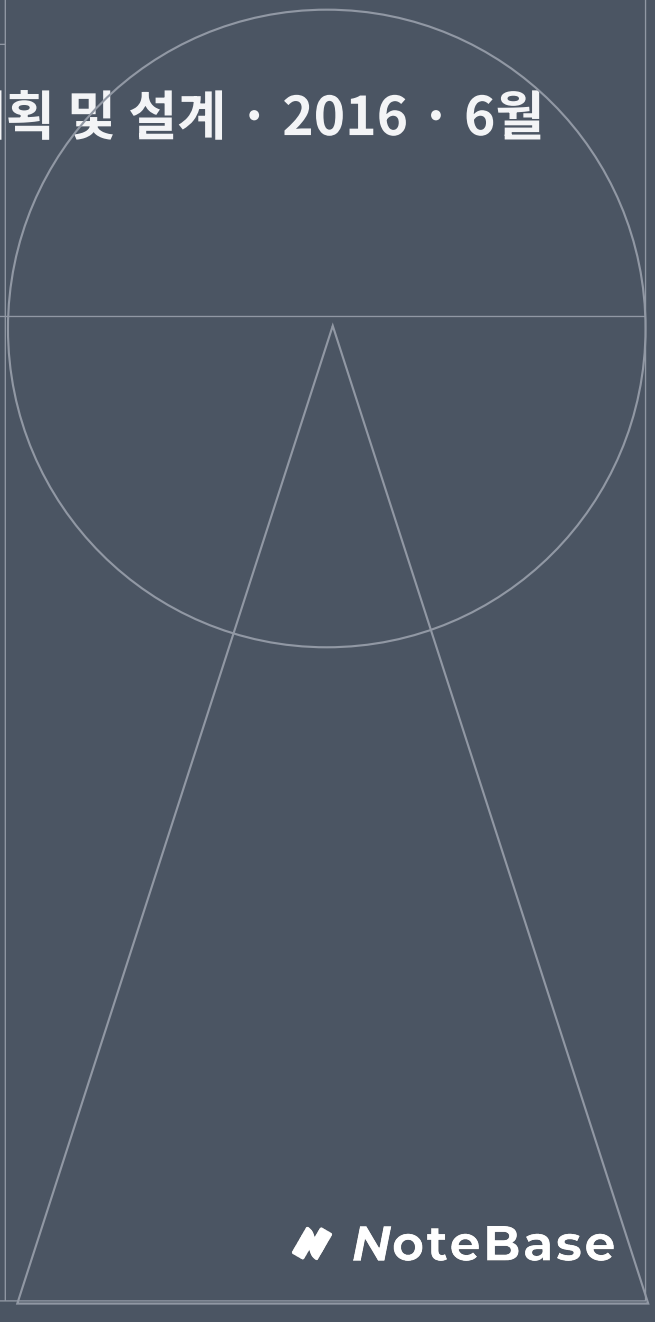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16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16 · 6월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16 · 6월

문 1. 조경계획 시 물리·생태적 분석 중 거시적 분석(지역성 분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역연관성

② 주변 지형

③ 기후

④ 위치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계획의 물리·생태적 분석에서 거시적 분석인 지역성 분석 항목과 대상지 내부의 자연환경 분석 항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거시적 분석(지역성 분석)은 대상지를 넓은 지역 속에서 파악하는 분석으로 위치, 주변 지형, 지역연관성처럼 대상지와 주변 지역의 관계를 본다.
미시적 분석(대상지 분석)은 대상지 자체의 구체적 조건을 파악하는 분석으로 지형, 토양, 식생, 수문, 기후·미기후 같은 자연환경 조건을 본다.

선지별 해설

① O: 지역연관성은 대상지가 주변 도시·녹지·교통·생활권 등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보는 항목이므로 거시적 분석에 해당한다.
② O: 주변 지형은 대상지 밖의 산지, 하천, 능선, 계곡 등 큰 지형 맥락을 파악하는 항목이므로 지역성 분석에 해당한다.
③ X: 기후는 이 문항에서 거시적 지역성 분석 항목이 아니라 대상지의 자연환경 조건, 특히 미기후와 이용 쾌적성에 영향을 주는 미시적 분석 항목으로 본다. 틀린 표현은 '거시적 분석(지역성 분석)에 해당한다'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기후는 대상지 분석의 물리·생태적 조건에 해당한다'이다.
④ O: 위치는 대상지가 지역 전체에서 어디에 놓이는지, 접근성과 주변 토지이용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이므로 거시적 분석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발문은 물리·생태적 분석 전체가 아니라 그중 '거시적 분석(지역성 분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다. ③의 기후도 물리·생태적 요소라는 점 때문에 맞는 선지처럼 보이나, 지역성 분석의 핵심은 대상지와 주변 지역의 관계이고 기후는 대상지 내부 조건 분석 쪽으로 분류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가 위치, 주변 지형, 지역연관성처럼 대상지를 지역 맥락 속에서 설명하면 거시적 분석으로 판단한다. 선지가 기후, 토양, 식생, 수문처럼 대상지 자체의 자연환경 조건을 설명하면 미시적 대상지 분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지역성 분석은 '위치·주변 지형·지역연관성', 대상지 분석은 '기후·토양·식생·수문'으로 묶어 둔다.

NoteBase

문 2. 다음 중 이용자반응 분석에서 시각적 선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물리적 변수(physical variables)는 식생, 물, 지형 등이 있는데, 자연경관에서 이들의 다양성이 증가하면 시각적 선호도도 증가한다.

② 추상적 변수에는 복잡성, 조화성, 새로움 등을 들 수 있으며, 복잡성과 시각적 선호의 사이에는 '역 U자형'의 관계성을 보인다.

③ 호즈슨과 테이어(Hodgson and Thayer, 1980)의 슬라이드 경관평가에서 저수지와 호수에 관한 선호도 평가 결과는 추상적 변수와 관계가 깊다.

④ 시각적 선호도의 측정방법은 행태측정, 정신생리측정, 구두측정 등이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용자반응 분석에서 시각적 선호를 설명하는 물리적 변수와 추상적 변수, 그리고 선호도 측정방법을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물리적 변수는 식생, 물, 지형처럼 경관에서 직접 관찰되는 요소이다.
추상적 변수는 복잡성, 조화성, 새로움처럼 이용자가 경관을 지각하고 평가할 때 형성되는 심리적 · 인지적 속성이다.
시각적 선호는 물리적 요소의 존재만이 아니라 적정한 복잡성, 조화성, 새로움의 균형에 의해 달라진다.

선지별 해설

1번 O: 식생, 물, 지형은 자연경관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물리적 변수이다. 자연경관에서 이러한 요소가 다양해지면 볼거리와 경관 변화가 커져 시각적 선호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옳다.
2번 O: 복잡성, 조화성, 새로움은 경관의 물리적 실체 그 자체가 아니라 이용자가 장면을 지각하며 평가하는 추상적 변수이다. 복잡성은 너무 낮아도 단조롭고 너무 높아도 혼란스러워져 선호와 역 U자형 관계를 보인다는 설명도 옳다.
3번 X: 틀린 부분은 "추상적 변수와 관계가 깊다"이다. 저수지와 호수에 관한 선호도 평가는 물이라는 구체적 경관 요소의 존재와 관련되므로 물리적 변수와 관계가 깊다고 고쳐야 한다.
4번 O: 시각적 선호도는 관찰 행동이나 이용 행태를 보는 행태측정, 생리 반응을 보는 정신생리측정, 언어적 평가를 받는 구두측정 등으로 측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③은 Hodgson and Thayer라는 연구자 이름 때문에 추상적 변수 이론 문제처럼 보이지만, 저수지와 호수라는 대상 자체가 물이라는 물리적 변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놓치게 만든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각적 선호 문항에서는 먼저 발문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고, 선지의 변수가 눈에 보이는 경관 요소이면 물리적 변수, 지각 · 평가 성격이면 추상적 변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식생 · 물 · 지형은 물리적 변수이고, 복잡성 · 조화성 · 새로움은 추상적 변수이며, 복잡성의 선호 관계는 역 U자형이다.

NoteBase

문 3. 관광계획 과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과정에서는 개혁적인 것보다는 점진적인 것을 추구하여야 한다.

② 대안을 기술하는 데 이용되는 기준이나 방법론은 객관적이고, 과학적 사실보다 개발자 및 관광객의 주관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

③ 관광계획에는 조경계획과 달리 공간개발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보존 혹은 개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일반적인 관광개발은 기획/타당성 검토→사업인가→시공→운영/관리 절차를 거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관광계획 과정에서 대안 설정과 평가, 관광개발 절차, 조경계획과 관광계획의 범위 차이를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관광계획 과정은 관광자원, 공간, 서비스, 사업성, 이용자 수요를 종합하여 여러 대안을 만들고 비교하는 과정이다.
대안의 기술과 평가는 객관적 기준과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개발자와 관광객의 가치는 계획 목표와 평가 기준 속에서 조정되는 요소이다.
관광개발 절차는 보통 기획과 타당성 검토, 인허가, 시공, 운영과 관리의 흐름으로 이해된다.

선지별 해설

1번 O: 계획과정은 한 번에 전면 개혁을 시도하기보다 조사, 대안 설정, 평가, 조정의 단계를 거치며 점진적으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개혁적인 것보다 점진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설명은 옳다.
2번 X: 틀린 부분은 "과학적 사실보다 개발자 및 관광객의 주관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이다. 대안을 기술하는 기준과 방법론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주관적 가치는 그 자료를 대신하는 우선 기준이 아니라 계획 목표와 평가 과정에서 조정되는 요소이다.
3번 O: 관광계획은 단순한 공간 배치나 물리적 조경계획에 그치지 않는다. 관광자원의 보전, 서비스 체계,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방향까지 함께 포함하므로 공간개발뿐 아니라 서비스의 보존 또는 개발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4번 O: 일반적인 관광개발은 먼저 기획과 타당성 검토로 사업 가능성을 따지고, 이후 사업 인허가, 시공, 운영과 관리로 이어진다. 제시된 절차는 관광개발의 일반적 진행 순서에 부합한다.

오답 포인트

2번은 앞부분의 "기준이나 방법론은 객관적"이라는 표현 때문에 전체가 맞는 문장처럼 보인다. 그러나 뒤에서 "과학적 사실보다 주관적 가치"를 우선한다고 하여 관광계획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뒤집는 것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관광계획 과정 문제에서는 발문이 옳지 않은 것을 묻는지 먼저 확인하고, 각 선지가 조사와 분석의 객관성, 대안 평가의 합리성, 개발 절차의 순서, 관광계획의 포괄 범위를 훼손하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관광계획은 객관적 자료로 대안을 평가하고, 관광개발은 기획과 타당성 검토에서 시작하여 인허가, 시공, 운영과 관리로 이어진다.

NoteBase

문 4. 다음 중 생태연못 조성 시 다양한 서식환경의 제공을 위하여 도입하는 설계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생물의 서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종(種)의 생애주기(life cycle) 및 서식에 적합한 설계를 한다.

② 수심에 변화를 주어 수심에 따라 다양한 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수변 침식을 방지하며 정수능력이 있는 갈대 등을 도입한다.

④ 수변은 급경사를 지양하고 생물 서식처로 활용될 수 있는 완경사만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생태연못에서 다양한 생물 서식환경을 만들기 위한 수심, 식생, 수변부 형태의 설계 원칙을 묻는다.

핵심 개념

생태연못의 서식환경 다양화는 특정 종의 생활사에 맞춘 서식처, 깊이가 다른 수심대, 정수식물과 수변식생, 다양한 경계부와 경사·바닥 형태를 함께 조성하는 것이다. 완경사 호안은 필요하지만, 수변 전체를 완경사 한 가지 형태로만 만드는 것은 다양한 미소서식처 조성과 맞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1번 O: 특정 생물을 목표로 서식환경을 만들 때에는 그 종의 산란, 은신, 먹이활동, 월동 등 생활사와 실제 서식 조건에 맞추어 설계한다. 이는 생태연못의 목표종 서식처 설계 원칙에 맞는다.
2번 O: 수심을 일정하게 하지 않고 얕은 곳, 중간 수심, 깊은 곳을 두면 수심대별로 다른 수생식물과 동물이 자리 잡을 수 있다. 수심 변화는 다양한 서식환경을 제공하는 설계 요소이다.
3번 O: 갈대 등 정수능력이 있는 정수식물은 수변 침식을 줄이고 오염물질 흡수와 미생물 서식 기반 형성에 도움을 준다. 수변 안정과 수질정화 기능을 함께 고려한 설명이다.
4번 X: 틀린 부분은 '완경사만으로 조성'이다. 급경사를 피하고 완경사 구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수변을 완경사 한 유형으로만 만들면 경계부, 경사, 바닥 형태, 수심의 변화가 줄어 다양한 서식처가 형성되기 어렵다. 올바르게는 수변부에 완경사 구간을 포함하되 경계부·경사·바닥 형태와 깊이를 다양하게 조성한다고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급경사를 지양'이라는 앞부분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인다. 그러나 출제자가 묻는 핵심은 다양한 서식환경이므로, 뒤의 '완경사만으로'가 서식처 다양성을 좁히는 표현이라는 점을 잡아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태연못 설계 요소 문제에서는 한 가지 안정한 형태로 통일하는지, 아니면 수심·경사·식생·바닥·경계부를 다양화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양화는 맞고, 단일화는 틀린 방향이다.

암기 포인트

생태연못은 수심도 다양하게, 수변도 다양하게, 식생도 다양하게 조성한다.

NoteBase

문 5. 다음 중 에너지보존을 위한 설계와 관련하여 태양열의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태양열의 이용은 적극적 이용(active solar energy use)과 소극적 이용(passive solar energy use)으로 구분된다.

② 태양열의 적극적 이용은 남향배치, 수목식재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말한다.

③ 단지 계획 및 설계에서는 태양열의 적극적 이용보다 소극적 이용과 관련이 깊다.

④ 최근에는 태양열의 이용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 기법들이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에너지보존 설계에서 태양열의 적극적 이용과 소극적 이용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태양열의 적극적 이용은 집열기, 축열장치, 기계설비 등을 통해 태양에너지를 모아 열이나 전기로 전환해 쓰는 방식이다.
태양열의 소극적 이용은 남향배치, 창의 위치, 차양, 수목식재, 열용량이 큰 재료 등 배치와 설계 자체로 일사와 열환경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구별 기준은 별도의 설비로 에너지를 수집·변환하는가, 아니면 공간 배치와 재료·식재로 자연 조건을 활용하는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태양열 이용은 적극적 이용과 소극적 이용으로 구분된다. 적극적 이용은 설비 중심이고, 소극적 이용은 배치·형태·재료·식재 중심이라는 점에서 맞는 설명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태양열의 적극적 이용은 남향배치, 수목식재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라는 표현이다. 남향배치와 수목식재를 통한 일사 조절·차양·방풍은 설비로 태양에너지를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소극적 이용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태양열의 소극적 이용은 남향배치, 수목식재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다.
③ O: 단지 계획 및 설계는 건축물과 외부공간의 배치, 일조, 바람, 식재, 그늘 등을 조절하는 일이 중심이므로 태양열의 적극적 이용보다 소극적 이용과 관련이 깊다.
④ O: 에너지 절약 설계에서는 태양열 이용, 일사 조절, 식재와 배치 계획 같은 설계 기법이 널리 적용된다. 이는 최근 조경·단지 설계에서 에너지보존과 환경조절을 함께 고려하는 경향과 맞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②에서 남향배치와 수목식재를 "적극적 이용"으로 바꾸어 놓은 점이다. 남향배치, 식재, 차양, 열용량 활용은 설비가 아니라 설계 자체로 에너지를 아끼는 소극적 이용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태양열을 별도 장치로 모아 변환·저장·공급하면 적극적 이용으로 판단하고, 배치·창·재료·식재로 일사와 열환경을 조절하면 소극적 이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적극적 이용은 설비로 모으는 태양열, 소극적 이용은 설계로 아끼는 태양열이다.

NoteBase

문 6. S. Gold는 레크리에이션 계획의 접근방법을 5가지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설명하였다. 다음 중 그 접근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회접근방법

② 활동접근방법

③ 행태접근방법

④ 자원접근방법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S. Gold의 레크리에이션 계획 접근방법 5가지를 알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명칭을 골라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S. Gold의 레크리에이션 계획 접근방법은 자원접근방법, 활동접근방법, 경제접근방법, 행태접근방법, 종합접근방법으로 정리된다.
자원접근방법은 자연적·물리적 자원의 수용력과 적합성을 중심으로 계획하는 방식이다.
활동접근방법은 이용자가 원하는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참여 양상을 중심으로 계획하는 방식이다.
행태접근방법은 이용자의 실제 행동 패턴과 이용 행태를 중심으로 계획하는 방식이다.
사회접근방법은 이 5가지 명칭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사회접근방법은 S. Gold가 제시한 레크리에이션 계획 접근방법 5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사회접근방법'이며, 올바르게는 경제접근방법 또는 종합접근방법처럼 Gold의 실제 분류에 들어가는 명칭이어야 한다.
② O: 활동접근방법은 이용자의 레크리에이션 활동 유형, 참여율, 활동 수요를 중심으로 계획하는 방법이므로 Gold의 접근방법에 해당한다.
③ O: 행태접근방법은 이용자의 구체적인 행동 패턴과 이용 행태를 분석하여 공간과 시설 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이므로 Gold의 접근방법에 해당한다.
④ O: 자원접근방법은 자연자원·물리적 자원, 수용력, 입지 적합성을 중심으로 레크리에이션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므로 Gold의 접근방법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사회'라는 말이 이용자나 지역사회 수요와 관련 있어 보여 그럴듯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Gold의 5가지 접근방법 명칭은 자원, 활동, 경제, 행태, 종합이며, 사회접근방법은 표준 목록의 명칭이 아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Gold의 레크리에이션 계획 접근방법 문제에서는 먼저 5가지 목록인 자원·활동·경제·행태·종합을 떠올린 뒤, 선지의 명칭이 이 목록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Gold 접근방법은 자원·활동·경제·행태·종합이고, 사회접근방법은 제외된다.

NoteBase

문 7.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모델은?

<보기>
대표적인 시각적 선호에 관한 계량적 예측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흑백사진을 이용하여 10개의 경관지역(landscape zone)을 나누고 있다. 이들 경관지역별로 경계선 길이, 면적 등을 계산하고 명암도를 고려하여 40개의 독립변수(X)를 선정하였다. 종속변수(Y)로는 야영자를 상대로 한 선호도를 채택하였는데 순서척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① 피터슨(peterson) 모델
② 쉐이퍼(shafer) 모델
③ 중정모델
④ PEQI모델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흑백사진을 경관구역으로 나누고 물리적 경관변수를 회귀적으로 처리하여 시각적 선호를 예측한 쉐이퍼 모델을 식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쉐이퍼 모델은 사진 속 경관을 여러 구역으로 구분하고 경계선 길이, 면적, 명암도 같은 물리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삼아 관찰자의 선호 순위를 예측하는 계량적 경관 선호 모델이다.
이 문항의 핵심 단서는 흑백사진, 10개의 경관지역, 경계선 길이와 면적, 명암도, 40개의 독립변수, 야영자 선호도, 순서척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피터슨 모델은 지문이 설명한 흑백사진 기반 경관구역 분석과 40개 독립변수에 의한 시각 선호 예측 모델의 대표 명칭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피터슨 모델'이며, 올바르게는 '쉐이퍼 모델'이다.
② O: 쉐이퍼 모델은 사진을 이용하여 경관요소를 물리적으로 계량하고, 그 변수와 이용자의 선호도를 연결하여 경관 선호를 예측한 모델이다. 지문의 흑백사진, 경관지역 구분, 경계선 길이·면적·명암도, 순서척도 선호도라는 단서가 모두 쉐이퍼 모델과 연결된다.
③ X: 중정모델은 이 지문처럼 자연경관 사진을 여러 경관구역으로 나누어 선호도를 예측하는 계량적 시각 선호 모델을 가리키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중정모델'이며, 올바르게는 '쉐이퍼 모델'이다.
④ X: PEQI모델은 보행환경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 성격의 모델로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며, 흑백사진의 경관구역 변수와 야영자 선호 순위를 연결한 모델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PEQI모델'이며, 올바르게는 '쉐이퍼 모델'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시각적 선호', '계량적 예측모델'이라는 넓은 표현만 보고 다른 환경평가 모델명과 혼동하게 하는 데 있다. 이 문항에서는 모델의 목적보다 방법 단서가 더 결정적이며, 흑백사진을 경관구역으로 분할하고 물리량을 독립변수로 삼는다는 점이 쉐이퍼 모델을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관 선호 모델 문제가 흑백사진, 경관구역 분할, 경계선 길이와 면적, 명암도, 다수 독립변수, 선호도 순위척도를 함께 제시하면 쉐이퍼 모델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쉐이퍼 모델은 사진을 쪼개고 물리변수를 세어 선호도를 예측한 경관 선호 계량모델이다.

NoteBase

문 8. 생태·자연도 작성과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상 별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닌 곳은?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③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④ 「습지보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을 제외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생태·자연도 작성에서 1등급 권역과 별도관리지역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용어 풀이

별도관리지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보전·관리되는 지역 중 생태·자연도에서 별도로 표시되는 지역이다.

핵심 구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1등급 권역에 해당한다. 별도관리지역은 같은 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25조에서 별도로 열거된 지역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연안습지보호지역을 제외한 습지보호지역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선지별 해설

1번: X.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는 별도관리지역이 아니라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기준이다. 틀린 표현: 별도관리지역에 해당한다. 올바른 표현: 1등급 권역에 해당한다.
2번: O.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의 별도관리지역 열거 대상이다.
3번: O.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은 시행령상 별도관리지역에 포함된다.
4번: O. 「습지보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은 별도관리지역에 해당하되, 연안습지보호지역은 제외된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보호 가치가 큰 지역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모두 별도관리지역으로 처리하는 데 있다. 1번은 보호 가치가 큰 지역이지만 별도관리지역 열거가 아니라 1등급 권역의 판단 기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태·자연도 문제에서는 먼저 1등급 권역의 생태적 가치 기준인지, 시행령 제25조에 열거된 다른 법률상 보호지역인지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멸종위기 서식지·도래지는 1등급, 생태·경관보전지역·백두대간보호지역·내륙 습지보호지역은 별도관리지역이다.

NoteBase

문 9. 연속적 경험을 고려한 공원설계에 있어서 연속적 공간에 변화를 주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공간규모
② 바닥패턴
③ 개방감
④ 이용자 수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연속적 경험을 고려한 공원설계에서 공간 변화감을 만드는 물리적·지각적 요소와 이용 관리 요소를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연속적 경험은 이용자가 동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공간의 크기, 바닥 처리, 시야의 열림과 닫힘을 차례로 체감하는 경험이다. 연속적 공간에 변화를 주는 요소는 공간을 직접 지각하게 하는 구성 요소이고, 이용자 수는 수용력이나 혼잡도와 관련된 계획 조건이다.

선지별 해설

① 공간규모 - X: 공간규모는 넓고 좁은 공간의 대비를 통해 연속 동선에서 긴장과 이완을 만든다. 따라서 가장 거리가 먼 요소가 아니라 연속적 공간 변화의 고려 요소이다.
② 바닥패턴 - X: 바닥패턴은 포장 재료, 선형, 방향감, 리듬을 통해 이동 중인 이용자에게 공간 전환을 인식시킨다. 따라서 가장 거리가 먼 요소가 아니라 연속적 공간 변화의 고려 요소이다.
③ 개방감 - X: 개방감은 시야가 열리거나 닫히는 정도를 뜻하며, 연속 공간에서 폐쇄적 공간과 개방적 공간의 대비를 만든다. 따라서 가장 거리가 먼 요소가 아니라 연속적 공간 변화의 고려 요소이다.
④ 이용자 수 - O: 이용자 수는 시설 규모, 수용력, 혼잡도 검토와 관련되는 조건이다. 연속적 공간 자체에 변화를 주는 직접적인 형태·지각 요소와는 거리가 가장 멀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공원설계에서 중요해 보이는 일반 계획 조건과 연속적 공간 변화 요소를 섞어 놓은 점이다. 이용자 수는 공원계획에서 필요하지만, 이 문항의 핵심인 이동 중 공간 변화감의 직접 요소는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속적 경험 문제가 나오면 이용자가 이동하면서 바로 지각하는 공간의 크기, 바닥, 시야, 폐쇄·개방의 변화인지를 먼저 판단한다. 수요, 인원, 관리, 운영 조건은 공간 변화 요소에서 제외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연속적 공간 변화는 규모·바닥·개방감처럼 눈과 발로 느끼는 요소이고, 이용자 수는 수용 계획 조건이다.

NoteBase

문 10. 이용후 평가(POE)에서 프리드만(Friedmann, et al., 1978) 등은 주로 옥외공간을 대상으로 한 설계평가 시 고려되어야 할 네 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 네 가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물리적 · 사회적 환경(setting)

② 주변 환경(proximate environmental context)

③ 사회-경제적 특성(social-economic context)

④ 설계 관련 행위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Friedmann 등의 이용후 평가(POE)에서 옥외공간 설계평가 시 고려하는 항목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Friedmann 등의 옥외공간 POE는 조성된 공간이 실제 이용 단계에서 설계 의도와 맞게 작동하는지를 평가한다.
주요 고려 사항은 물리적·사회적 환경, 이용자 만족, 주변 환경과의 맥락, 설계 관련 행위로 정리된다.
사회·경제적 특성은 일반적인 도시·지역 분석 요소로는 의미가 있으나, 이 문항에서 묻는 Friedmann POE의 네 항목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물리적·사회적 환경은 POE에서 공간의 물리적 조건과 그 안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용 양상을 함께 보는 항목이다.

② O: 주변 환경은 대상 옥외공간이 인접 공간, 접근성, 주변 도시환경과 어떤 맥락으로 연결되는지를 보는 항목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사회-경제적 특성이다. 올바르게는 이용자 만족이 Friedmann 등의 POE에서 제시되는 고려 사항에 해당한다. 사회·경제적 특성은 이용자의 소득, 계층, 지역경제 조건처럼 별도의 사회경제 분석에서 다루는 항목이지, 이 네 항목 중 하나가 아니다.

④ O: 설계 관련 행위는 이용자가 공간에서 실제로 어떤 활동과 행태를 보이는지, 그 행위가 설계 의도와 맞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③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조경계획에서 자주 쓰이는 분석 용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반적인 조경계획 조사 항목이 아니라 Friedmann 등의 POE 네 항목을 묻는다. 따라서 비슷하게 그럴듯한 사회·경제 분석 용어와 이용자 만족을 바꾸어 놓은 ③이 오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Friedmann POE가 나오면 옥외공간의 실제 이용 평가라는 관점에서 물리·사회 환경, 이용자 만족, 주변 맥락, 설계 관련 행위의 네 축을 먼저 대조한다. 선택지에 사회경제, 지역경제, 인구통계처럼 일반 조사 항목이 들어가면 네 축 자체인지 따져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Friedmann POE는 물리·사회 환경, 이용자 만족, 주변 맥락, 설계 행위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11. 다음 중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인간친화적인 옥외 공간 조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행 및 차량동선은 보차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보행 및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경우 보행을 우선으로 계획하고 휠체어나 유모차 등의 통행을 고려하여 경사로의 기울기는 최대 1/12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계단이나 경사로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일정 간격으로 휴식참을 만들며 측면에는 연속적인 손잡이를 설치한다.

④ 무장애 디자인(barrier-free design)의 하위개념으로 활용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인간친화적 옥외 공간 조성 원칙과 무장애 디자인의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 유무, 연령, 신체 능력과 관계없이 가능한 많은 사람이 처음부터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접근이다. 무장애 디자인은 주로 장애인 등의 이동과 이용을 막는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접근이므로, 유니버설 디자인보다 좁은 개념으로 이해된다.

선지별 해설

1번 O: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옥외 공간을 만들기 위해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은 충돌을 줄이도록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2번 O: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 약자를 우선 고려한다. 휠체어와 유모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경사로 기울기를 완만하게 계획하는 설명도 유니버설 디자인의 접근과 맞다.
3번 O: 계단이나 경사로의 바닥은 미끄럼을 줄이는 재료와 구조가 필요하고, 장거리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간격의 휴식참과 연속 손잡이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
4번 X: 틀린 부분은 '무장애 디자인의 하위개념'이다. 올바르게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무장애 디자인을 포함하거나 확장하는 상위 개념이고, 무장애 디자인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한 구성 요소로 이해된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유니버설 디자인과 무장애 디자인의 포함 관계이다. 둘 다 이동 약자를 배려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유니버설 디자인은 특정 장애물 제거에 그치지 않고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처음부터 보편적으로 설계하는 개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문이 '옳지 않은 것'인지 먼저 확인하고, 선지가 안전한 보행 동선, 완만한 경사, 미끄럼 방지, 연속 손잡이처럼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면 맞는 설명으로 판단한다. 반대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무장애 디자인보다 좁은 하위 개념으로 두면 틀린 설명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처음부터의 설계이고, 무장애 디자인은 장벽 제거 중심의 좁은 개념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중 형태심리학의 개념인 게슈탈트(gestalt)이론에 있어서 게슈탈트의 원리가 아닌 것은?

① 균형의 원리

② 지속성의 원리

③ 폐쇄의 원리

④ 이질성의 원리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형태심리학의 게슈탈트 이론에서 지각 대상을 하나의 조직된 전체로 묶어 보는 원리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게슈탈트 이론은 인간이 개별 요소를 따로따로 보지 않고 의미 있는 전체 구조로 조직하여 지각한다는 이론이다.
균형의 원리는 형태가 안정되고 조화로운 전체로 지각되려는 경향과 관련된다.
지속성의 원리는 선이나 배열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방향으로 지각되는 경향이다.
폐쇄의 원리는 불완전한 형태도 빈 부분을 메워 완전한 형태로 지각하는 경향이다.
유사성의 원리는 색, 형태, 크기 등이 비슷한 요소를 같은 집단으로 묶어 지각하는 원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균형의 원리는 형태나 구성이 안정된 전체로 파악되려는 게슈탈트적 지각 경향과 연결되므로 게슈탈트의 원리에 해당한다.
② O: 지속성의 원리는 끊어진 요소라도 일정한 방향이나 흐름을 따라 이어진 것으로 보는 원리이므로 게슈탈트의 대표적 조직 원리이다.
③ O: 폐쇄의 원리는 빠진 부분이 있어도 하나의 완결된 형태로 보려는 지각 원리이므로 게슈탈트의 원리에 해당한다.
④ X: 이질성의 원리는 게슈탈트의 일반적 조직 원리로 보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이질성'이며, 올바르게는 비슷한 요소를 같은 집단으로 지각하는 '유사성의 원리'이다.

오답 포인트

발문이 '아닌 것'을 묻고 있으므로 익숙한 디자인 용어처럼 보이는 ④의 이질성에 속기 쉽다. 게슈탈트 원리에서는 서로 다른 것을 묶는 이질성보다 비슷한 것을 묶는 유사성이 핵심 원리로 출제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게슈탈트 원리 문제에서는 근접성, 유사성, 지속성, 폐쇄성, 균형 또는 대칭처럼 요소가 하나의 전체로 조직되는 방향의 용어인지 먼저 판단한다. 반대로 이질성처럼 요소의 차이를 강조하는 용어는 대표 원리에서 제외된다.

암기 포인트

게슈탈트는 비슷한 것은 묶고, 이어진 것은 잇고, 빈 곳은 메우고, 전체는 안정되게 본다는 원리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중 식생을 표현한 생태·자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하천·내륙습지·호소·농지·도시 등에 대해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② 생태·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한다.

③ 우리 국토 전체를 개발지역, 반자연지역, 자연지역, 수역으로 나누며 식생상태에 따라 10개 등급으로 나눈다.

④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은 1등급 권역에 해당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생태·자연도의 법정 작성 목적, 축척 표시, 등급 구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생태·자연도를 녹지자연도식 10등급 체계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용어 풀이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토지이용과 개발계획의 판단 자료로 활용하는 지도이다.

핵심 구분

생태·자연도는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의 자연환경을 평가하여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3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한다. 10개 등급으로 나누는 식생 자연성 중심의 체계와 다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생태·자연도는 산·하천·내륙습지·호소·농지·도시 등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하는 지도이므로 옳다.
2번 O: 생태·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다.
3번 X: 틀린 표현은 "개발지역, 반자연지역, 자연지역, 수역으로 나누며 식생상태에 따라 10개 등급"이다. 생태·자연도는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3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한다. 올바르게는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등에 따라 1·2·3등급 권역과 별도관리지역으로 나눈다"이다.
4번 O: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생태·자연도를 녹지자연도나 식생 자연성 등급 체계처럼 10개 등급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데 있다. 생태·자연도는 10등급 체계가 아니라 1·2·3등급 권역과 별도관리지역 체계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태·자연도 문제가 나오면 먼저 발문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등급 체계가 1·2·3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인지 확인한다. 10등급이라는 표현이 붙으면 생태·자연도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암기 포인트

생태·자연도는 생태 가치 기준의 1·2·3등급과 별도관리지역, 녹지자연도식 10등급이 아니다.

NoteBase

문 14. 다음 중 「자연공원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자연공원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군립공원
② 도립공원
③ 생태공원
④ 지질공원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자연공원법」에서 자연공원의 종류를 어떻게 열거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법정 자연공원 종류와 일반적인 생태 관련 공원 명칭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이 보전과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공원 유형을 말하며, 법은 그 종류를 열거식으로 정한다.

핵심 구분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생태공원은 자연이나 생태를 주제로 한 공원 명칭으로 쓰일 수 있으나, 이 조항이 열거한 자연공원의 종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1번 군립공원: O. 군립공원은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의 종류에 포함된다.
2번 도립공원: O.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의 종류에 포함된다.
3번 생태공원: X. 생태공원은 보기의 다른 항목처럼 「자연공원법」이 열거한 자연공원의 종류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생태공원"이며, 올바르게는 자연공원의 종류가 아니라는 설명이 맞다.
4번 지질공원: O. 지질공원도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의 종류에 포함된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생태"라는 말이 자연공원과 가까워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공원의 성격이나 기능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열거한 명칭을 묻는 문제이므로, 법정 열거 항목에 없는 생태공원을 골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의 종류를 묻는 문제에서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인지 먼저 대조한다. 이 네 항목 밖의 그럴듯한 공원 명칭은 법정 종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자연공원법의 자연공원은 국립, 도립, 군립, 지질이고 생태공원은 제외된다.

NoteBase

문 1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접근로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④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최소 3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세부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접근로의 유효폭, 가지치기 높이, 기울기, 덮개 격자구멍 · 틈새 간격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휠체어 사용자 등 보행약자가 건축물이나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폭, 기울기, 바닥 상태, 장애물 제거 기준을 갖춘 통행로이다.

핵심 구분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이고, 접근로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18분의 1 이하이다.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기울기를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접근로의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해야 하며, 빠질 위험이 있는 곳의 덮개는 접근로와 같은 높이로 설치하고 격자구멍 또는 틈새 간격은 2센티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시행규칙 기준과 일치한다.

② O
- 접근로에 가로수가 있는 경우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해야 하므로 시행규칙 기준과 일치한다.

③ O
-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가 원칙이고, 지형상 곤란한 경우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 기준과 일치한다.

④ X
- 덮개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은 3센티미터 이하가 아니라 2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 틀린 표현: 그 간격이 최소 3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올바른 표현: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접근로 기준 중 숫자 기준을 섞어 놓은 것이다. 1.2미터, 2.1미터, 18분의 1, 12분의 1은 모두 맞는 수치이고, ④의 덮개 격자구멍 · 틈새 간격만 3센티미터가 아니라 2센티미터 이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접근로 문제에서는 먼저 발문이 일치하는 것인지 일치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한다. 그다음 유효폭 1.2미터 이상, 가지치기 2.1미터까지, 기울기 18분의 1 이하와 예외 12분의 1, 덮개 틈새 2센티미터 이하를 각각 대응시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접근로 숫자는 폭 1.2, 가지 2.1, 기울기 18분의 1 원칙 · 12분의 1 예외, 덮개 틈새 2센티미터 이하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위탁의 주체, 공고, 업무 대행, 위탁 기준의 규율 형식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위탁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공원관리청 =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공원수탁관리자 =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핵심 구분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원수탁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의 방법 · 기준 및 수탁자 선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위탁의 방법 · 기준 및 수탁자 선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틀린 표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이다. 올바른 표현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이다.
2번 O: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위탁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공고 의무를 규정한 선지이므로 옳다.
3번 O: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공원수탁관리자의 업무 대행 근거를 묻는 선지이므로 옳다.
4번 O: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관리청에 해당하며,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주체와 수탁 가능 대상을 함께 설명한 선지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1번의 "국토교통부령"이다. 공원시설 관련 세부 기준 일부가 부령에 위임되는 경우가 있어 보이지만, 이 문항의 대상인 관리 위탁의 방법 · 기준과 수탁자 선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사항으로 처리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시공원 관리 위탁 문제에서는 먼저 위탁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위탁 후 공고 의무와 수탁관리자의 업무 대행 가능성을 본다. 마지막으로 위탁 방법 · 기준 · 수탁자 선정 기준은 중앙부령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도시공원 관리 위탁은 공원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하면 공고하며, 수탁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대행하고, 위탁 기준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NoteBase

문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중 경관지구를 세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문화경관지구
② 시가지경관지구
③ 자연경관지구
④ 수변경관지구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경관지구의 세분 명칭을 묻는다. 핵심은 경관지구에 속하는 세부 지구와 명칭이 비슷하지만 법령상 세분 명칭이 아닌 지구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용도지구이다. 용도지구의 세분 = 하나의 용도지구를 목적과 대상에 따라 더 작은 법정 지구 명칭으로 나누어 지정하는 것이다.

핵심 구분

출제 당시 시행령상 경관지구의 세분은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이다. 문화경관지구는 그 세분 명칭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문화경관지구: X. 시행령상 경관지구의 세분 명칭은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로 정리된다. 문화경관지구라는 명칭은 경관지구의 법정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문화경관지구. 올바른 표현: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중 하나이다.
② 시가지경관지구: O. 시가지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한 경관지구의 세분이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자연경관지구: O.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경관지구의 세분이다. 따라서 법령상 세분 명칭에 해당한다.
④ 수변경관지구: O. 수변경관지구는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 · 유지하기 위한 경관지구의 세분이다. 따라서 문화경관지구와 달리 경관지구 세분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경관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일반 개념과 시행령이 열거한 세분 명칭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발문은 경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법령상 세분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용도지구 세분 문제는 먼저 발문이 '해당하는 것'인지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하고, 경관지구 세분은 자연 · 수변 · 시가지의 세 명칭을 기준으로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출제 당시 경관지구 세분은 자연 · 수변 · 시가지이고, 문화경관지구는 법정 세분 명칭이 아니다.

NoteBase

문 18.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상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녹지활용계약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녹지활용계약의 대상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

③ 녹화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소유자 등은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녹화계약서(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상 녹지활용계약과 녹화계약의 기간, 대상토지, 체결 절차, 지원 묘목의 법적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녹지활용계약은 사유지 등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장과 토지소유자가 체결하는 계약이다.
녹화계약은 일정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주민협의회를 통해 녹화계획과 관리 사항을 정하고 시장과 체결하는 계약이다.

핵심 구분

녹지활용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이 원칙이고, 시장은 최초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녹화계약은 주민협의회를 통한 계약서 작성과 체결 요청, 지원 묘목의 소유권 귀속 및 계약기간 중 처분 제한이 핵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녹지활용계약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 부분이 틀리다. 조례상 계약기간은 5년 이상이다. 다만 시장이 최초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맞다. 틀린 표현: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올바른 표현: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② O: 녹지활용계약 대상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어야 한다. 권리 설정이 있으면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③ O: 녹화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소유자 등은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녹화계약서안을 작성하고 시장에게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주민협의회가 녹화계약의 체결 · 이행 · 관리를 위한 절차상 통로가 된다.
④ O: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 · 훼손하거나 처분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 귀속과 처분 제한을 함께 보아야 한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①의 숫자 바꾸기이다. 계약기간 조정 가능이라는 예외 문구가 맞게 붙어 있어도 기본 계약기간이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이면 선지 전체는 틀린 설명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녹지활용계약은 대상토지와 계약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녹화계약은 주민협의회 절차와 지원 묘목의 소유권 · 처분 제한을 확인한다. 기간 숫자가 나오면 5년 이상인지부터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녹지활용계약 기간은 5년 이상, 녹화계약은 주민협의회와 묘목 소유권 · 처분 제한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9.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은 무엇인가?

① 저류시설
② 유수시설
③ 관개시설
④ 수리시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유수지의 세부시설 중 유수시설과 저류시설의 정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유수지 = 집중호우 때 불어난 물을 잠시 받아 두어 침수 피해를 줄이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도시 · 군계획시설이다.
제내지 = 제방의 안쪽에 있어 하천 범람으로부터 보호되는 토지이다.

핵심 구분

도시 · 군계획시설규칙 제118조는 유수지를 유수시설과 저류시설로 나눈다. 유수시설은 집중강우로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이다. 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 방류하기 위한 시설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저류시설은 같은 유수지 계열의 시설이지만, 문제의 문구처럼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여 하천에 방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저류시설'이며, 올바르게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 방류하기 위한 시설'이다.
2번 O: 유수시설은 집중강우로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이다. 발문 문구가 유수시설의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3번 X: 관개시설은 농경지 등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분배하는 시설을 가리키는 용어로, 발문의 도시 · 군계획시설규칙상 유수시설 정의와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관개시설'이며, 올바르게는 '유수시설'이다.
4번 X: 수리시설은 물의 이용 · 조절과 관련된 넓은 표현이지만, 발문이 묻는 규칙상 세부시설 명칭은 수리시설이 아니라 유수시설이다. 틀린 표현은 '수리시설'이며, 올바르게는 '유수시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일시적으로 저장'이라는 공통어만 보고 1번 저류시설을 고르는 것이다. 이 문항에서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 조절'과 '하천에 방류'라는 표현이 유수시설을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시 · 군계획시설규칙에서 집중강우, 제내지 · 저지대 배수량 조절, 하천 방류가 함께 나오면 유수시설로 판단한다. 빗물을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뒤 방류한다는 표현이 중심이면 저류시설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유수시설은 제내지 · 저지대 배수량을 조절해 하천으로 보내는 시설이고, 저류시설은 빗물을 모아 두었다가 나중에 방류하는 시설이다.

NoteBase

문 20.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서 정한 주제공원이 아닌 것은?

① 생태공원
② 산림공원
③ 놀이공원
④ 가로공원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가 조례로 정한 주제공원의 세부 종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주제공원은 생활권공원과 달리 특정 기능이나 이용 목적을 중심으로 설치되는 도시공원 유형이다.

핵심 구분

서울특별시 조례상 주제공원으로는 생태공원, 놀이공원, 가로공원이 열거된다. 산림공원은 이 조례가 정한 주제공원 명칭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생태공원: O. 생태공원은 생물서식공간 조성과 생태학습 등의 목적을 가진 공원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상 주제공원에 해당한다.
② 산림공원: X. 산림공원은 선지 중 유일하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가 정한 주제공원 명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틀린 표현은 "산림공원"이고, 올바르게는 조례상 열거된 생태공원, 놀이공원, 가로공원 중 하나로 고쳐야 한다.
③ 놀이공원: O. 놀이공원은 각종 놀이와 위락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공원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상 주제공원에 해당한다.
④ 가로공원: O. 가로공원은 가로변 경관과 완충 기능,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상 주제공원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산림공원이라는 명칭은 조경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이 문항은 일반적인 공원 명칭이 아니라 조례에 실제로 열거된 주제공원 명칭을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례상 공원 종류 문제는 기능상 그럴듯한 명칭보다 조문에 열거된 명칭인지 여부를 먼저 기준으로 삼는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서울시 조례의 주제공원 추가 유형은 생태공원, 놀이공원, 가로공원으로 정리된다.

NoteBase